

## 哲學片感(三)

-哲學을 왜 非難하는가-

朴相鉉

□□는 말하되 哲學은 이 經濟□□의 時代에 있어서 一個의 『팡』도 給지 못하고 사라서 現實을 超越하는 學問이라고 한다.

難者의 以上の 말은 너무나 事實이다. 哲學은 『팡』□□所에서 一個의 『팡』도 給지 못함은 □□한 事實임은 筆者도 承認하는 것이다. 그러나 『팡』을 給지 못한다고 哲學을 非難 할 것은 아니다. 勿論 우리는 『팡』이 있어야 生命을 持□한다. 그러므로 現代같은 不□□의 經濟狀□에서는 더욱 『팡』을 要求하게 된다.

그런데 사람은 흔히 『팡』에 對한 觀念을 誤解하는 수가 있다. 그것은 人生生活의 手段 價値로서의 肉體的 □□을 生活의 目的이라고 誤解하는 이 點이다.

肉體的 糧食만 □當하면 生的 滿足을 □得 할 수 잇겠느냐하면 누구나 그것은 誤解이요, 否認 그것이다. 사람의 理想을 □設하기 爲하여 □加的, □組的 條件이 體的 糧食만을 爲한 사람은 아니다.

압해서도 말했거니와 사람은 □□과 精神의 二方面을 □有하고 잇는 以上 『팡』以 外에 精神의 糧食이 必要함은 □□을 要치 안는다.

難者는 物質的 方面에만 □□하고 그 精神的 方面을 無視한 것이 아닐가?

우리는 아모리해도 精神은 物體의 主體임을 否認하지 못한다. 그런데 『맑스』의 唯物史觀에서는 物質이 精神의 主體임을 明示했다. 『맑스』가 社會의 下部□造인 經濟的 □造가 變하면 必然的으로 上部□□인 精神文化 (社會的 意義形態)가 變動한다고 말한 것이라든가 사람의 意義이 그 存在를 決定하는 것이 아니라 격구로 社會的 存在가 사람의 □□을 決定한다고 한 것을 보더라도 確實히 『맑스』는 精神보다 物質을 □要□하였다.

『맑스』의 唯物史觀은 나에게 滿足을 주지 못한다. 『맑스』의 唯物史觀을 社會的 見地에서 考察한다면 그것에 一理가 包含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나 그

러나 哲學的 見地에서 考察하면 그것은 □□思想에 不過함을 免치 못한다. 何故이나 하면 『맑스』는 高貴한 精神보다도 物質이 重要함을 主張한 까닭이다.

우리는 어데까지든지 物質에 比한 精神의 □位를 □唱하는 것이다. 人類文化의 進歩와 歷史의 進展의 根本的 土臺는 物質的 條件이 아니라 當然히 精神일 것이다.

그러나 極端的 唯物論者는 物質만을 強調하여 精神을 無視하고 極端的 唯心論者는 精神만을 強調하여 物質을 無視한다. 이러한 態度는 唯物論者나 唯心論者가 모두 너무나 極端的인 □□의 見解에서 나온 줄 안다. 나는 그러한 獨斷的 哲學□르려 하지 안는다. 다만 사람이란 精神 物質의 二元論的 要求로서 形成도 니 것인데 그 中에도 精神은 物質보다 重要하고 重體가 된다는 것을 力說 할 뿐이다.

그러면 精神的 生活의 人類生活 上 地位도 넉넉히 □□□ 수 있는 事實이다. 그리고 압해서도 말하얏거니와 精神的 生活의 糧食인 哲學은 人間生活 上에서 直接□□하여 그 實際的 價値를 供□하는 地位에 잇슴도 千言萬□□ 羅列 할 必要업시 直覺的으로 □知 할 수 있는 明確한 事實이다.

그런 즉 難者의 □□□□ 이 『광』아사□의 肉體的 生活의 糧食이라면 哲學은 사람의 精神的 生活의 糧食이다. 『노비리스』는 『哲學은 『광』을 굶지 못한다. 그러나 哲學은 우리에게 □과 自由와 □□不□을 주는 것이다』라고 부르 지졌다.

以上에서 나는 哲學과 生活 上 關係□ 哲學의 實際性을 力說했다. 그런데 지금은 哲學의 實際性을 歷史的으로 簡單히 考察하여 보자.

上古 希□ 哲學思想은 希□의 文化를 高□으로 向上식혔스며 哲學史 上의 希□□□ 時代에 잇서서 的 □□가 希□哲學의 □□을 만히 바닷슴도 歷史가 證明하는 바이다.

近代에 와서 英國의 『프란시스·배콘[프란시스 베이컨]이 『知識은 努力이다』라고 부르지즈며 學問研究의 經驗的 □□□□□□으로부터 □□□□主義 思想이 英國人의 生活을 支配하얏고 차라서 自然科學은 □□의 形□였으며 □□에는 □□□□까지 □來하얏다. □□에 잇서서 『헤겔』의 哲學이 그 當時 獨逸人의 生活에 多大한 □□을 주엇음은 우리의 □知하는 바이다.

米國에 잇서서 『제임스』와 『□이』 등의 主張한 『實用主義哲學(Pragmatism)이 米國人의 生活 內面을 支配하고 잇음은 今日의 米國의 科學文明과 米國人의 生活 形式이 알려주는 事實이다. 如□히 歷史的으로 哲學을 考察하여도 哲學은 우리의 生活과 實質的으로 □□하얏음을 알 수 있다. 要

권된 哲學은 어느 意味에 잇어서 生活 속에서 創出하는 學問임을 아라야 된다. □上□□□한 □□□羅列하여 □□의 一□으로 한다. 窹